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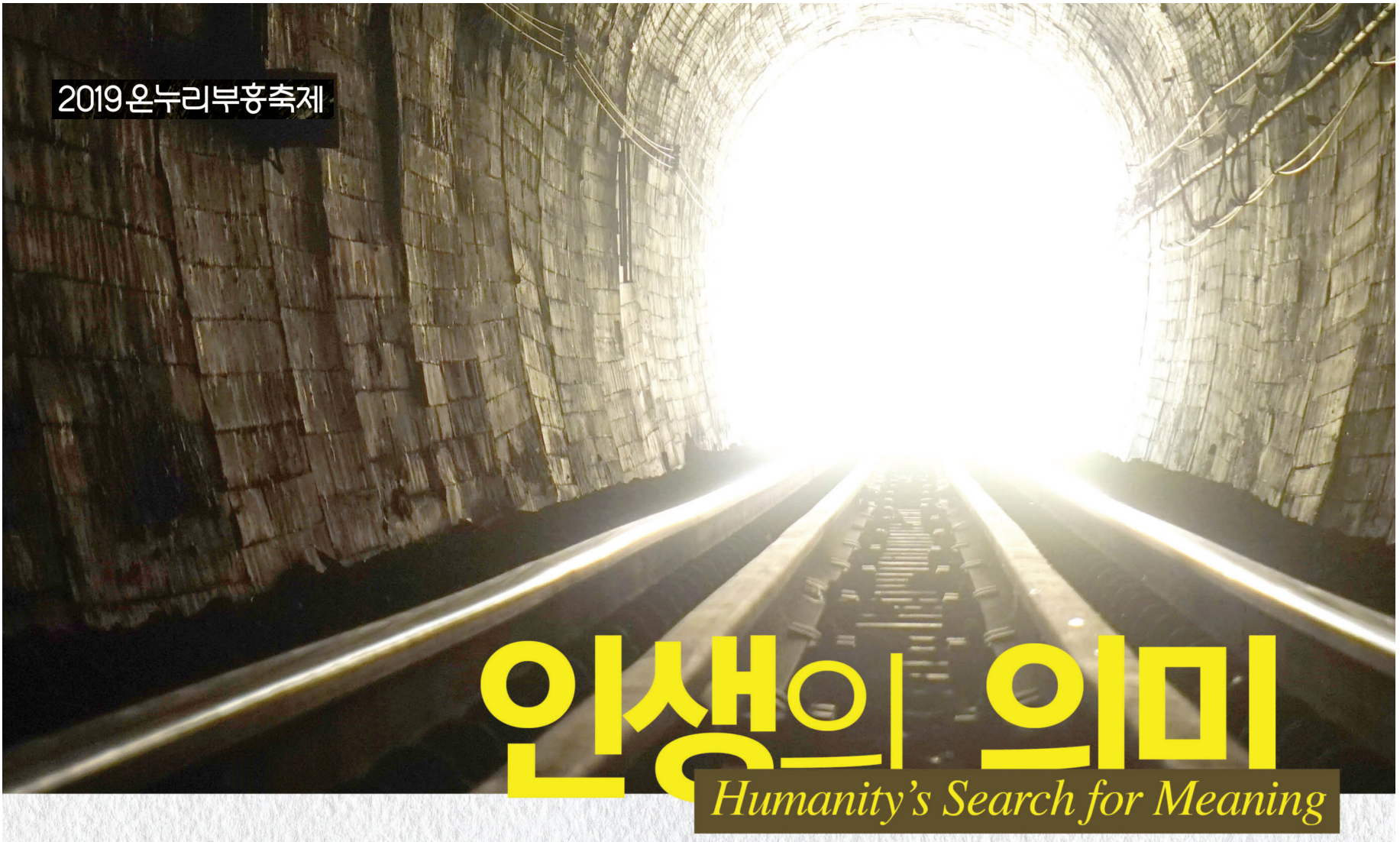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0월 13일(주일) 제1265호



2019 온누리부흥축제

인생의 의미

Humanity's Search for Meaning

10월 16~18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 강의

2019 온누리 부흥축제 '인생의 의미'가 막 오른다.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번 온누리 부흥축제는 등록비가 없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예약없이 참석할 수 있다.

2019 온누리 부흥축제 '인생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인가?', '인간 존재의 의미는?'을 주제로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강의한다. 라비 재커라이어스는 비교종교학과 컬트, 철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기독교계

의 석학이자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지역센터(RZIM)' 총재다. C.S. 루이스 이래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며 기독교계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라비 재커라이어스는 지난 40여 년 동안 기독교 철학, 세계 종교 등을 주제로 하버드와 프린스턴 등 세계 유수 대학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강연 활동을 해왔다. 지금은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 '내 백성이여 생각하라'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

넓은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2>, <위대한 장인>,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믿음의 이유> 등이 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강의를 듣기 전에 두란노서원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믿음의 이유>을 읽으면 훨씬 깊이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9 온누리 부흥축제는 특순도 풍성하다. CRUX, 사랑채버, 김영미 권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축제 기간 동안 교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는 것이 좋다.

문의: 02-3215-335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22:17-33(10월 14일 본문)

본문 주제: 구별(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영상제목: <총성된 청년, 구나완> 손창남 선교사

내용: 구나완 형제가 선교회 간사로 지원하여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구나완 형제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구나완 형제는 '나는 주님 섬기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주님의 제단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현재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적용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속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요?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CjnJOBTWc_c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TGC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10월 30일~11월 1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가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3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주제로 돈 카슨(TGC 대표), 브라이언 채플(커버넌트신학대학원명예총장), 필립 라이큰(휘튼대학교 총장), 스티븐 엄(TGC 부대표)이 강의한다. 10개 강의를 이어진다.

회비는 출석교인 3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

사(배우자) 18만 원, 출석교인 100~30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배우자) 15만원, 출석교인 10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배우자)와 모든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 선교사 및 선교단체 직원(배우자) 10만원, 신학교 학생(배우자) 7만원, 일반 성도 15만원이다. 10월 30일(수)과 31일(목) 저녁강의는 무료공개 강의다.

문의: 02-570-7447, TGC코리아 02-868-8425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2,800명 동참

지난주일(6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 2019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2,800명이 신규약정, 증액후원, 일시후원을 했다. 이로써 CGNTV와 함께하는 미디어 선교사는 총 34,000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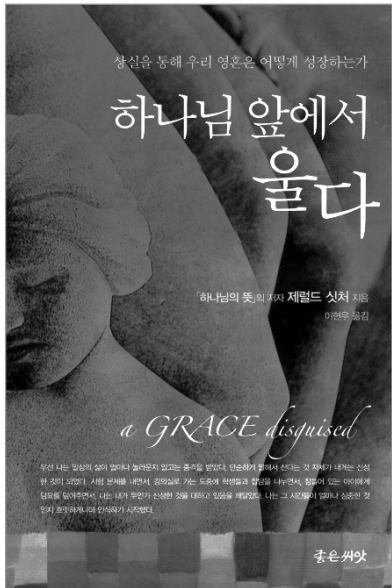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는 "앞으로도 CGNTV가 선교사들을 돕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2-796-2243



책 읽어주는 목사

위장된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싯처 저 | 좋은씨앗 | 8,500원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불행에 접하게 됐을 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상실’이라는 아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 제럴드 싯처는 대학교수이며 네 아이의 아빠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족들

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다. 이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남은 세 아이들도 큰 부상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 견디기 힘든 이 사고는 교회봉사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발생했다. 여기서 우리는 심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더 행통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에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얼마 전 너무나 사랑하는 장모님이 소천하셨다. 장모님이 돌아가시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 청년 때부터 나를 귀여워해주시며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분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던 나에게 시집오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셨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은퇴장로님들께 10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음료를 대접하시면서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어 가게 된 것도 장모님의 중보기도 덕분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하늘을 바라보면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한다. 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의 아쉬움은 크고 아플 수 있다. 어떤 드라마 주인공은 외계에서 지구로 와 수백 년을 살게 된다. 그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기와 이 땅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면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선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잃었지만 또한 얻었다. 나는 사랑하던 세상을 잃었지만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다. 은혜야말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새삼 발견하도록 해주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A Grace Disguised〉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아프지만 그것은 ‘위장된 은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과 직면하게 된다. 욕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욕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잃게 되

었고, 몸은 악성피부병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욕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듣고 회개한다. 욕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된다. 그렇다. 이 땅에서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문제는 건넌만한 것이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끝맺는다.

“상실을 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세다. 오히려 상실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상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며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헌금 내는 것이 부담 돼요”

답: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헌금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고백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내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헌금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야 합니다. 평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부담 없이 헌금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나 기신자할 것 없이 십일조와 헌금문제를 가지고 진솔한 상담을 해올 때가 많다. “헌금을 매주 주일 꼭 해야 하나요?”, “주재원으로 잠깐 해외나 지방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데 본교회에 십일조하면 되지 않나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헌금생활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헌금을 약정했는데 빛을 내서라도 드려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받는다. 어떤 분은 교회가 헌금을 의무적으로 강요해서 신앙생활에 심한 피로를 느낀 나머지 아예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교회에 헌금에 대한 교육부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성경은 올바른 헌금생활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 신명기 14장 22~29절에서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시편 96편 8절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은 헌금 내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언급할 때 히브리어로 ‘십의 일’은 ‘첫 것’, ‘장자’, ‘만물’, ‘대표(모든 것)’를 의미한다. 그들이 바친 십일조나 헌금은 단지 일부분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건강, 재물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전제로 바친다는 뜻이다.

신약에서도 헌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마가복음 12장 41~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렵돈을

보시며 헌금의 양이나 액수를 결코 축복의 개념 정도로 규정짓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후서 8~9장에서 왜 부유한 고린도 교회보다 가난한 마게도냐교회가 연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을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원으로 드렸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였다. 바울은 마게도냐교회의 헌금생활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임을 역설한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헌금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고백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을 내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헌금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반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 이에 대해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야 한다. 평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부담 없이 헌금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벌 때 1만원은 십일조로 쉽게 낸다. 그러나 100만 원을 벌 때 10만원을 십일조로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1억을 벌 때 1천만 원을 십일조로 내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게 느껴진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은 헌금생활 교육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녹 17:20~21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미디어 전쟁 시대에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왜곡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수백 개의 종파로 나누어지고 분열된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를 얼룩지게 만든 이 수많은 분열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리적인 차이, 역사적 시각의 차이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에게 의해 사유화되기도 하고, 과거의 인습과 전통에 매여 변화하지 못하기도 하고, 복음을 온 세상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브라질 선교사 출신이자 탁월한 교회 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저서 <참으로 해방된 교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교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제도와 헌장과 서약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다름과 분열로 얼룩지게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에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였는지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평가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

교회의 제일 사명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의 또 다른 지적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해방시키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교회에게 있어야 할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교회의 제 1순위 사명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Eli Stanley Jones)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았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잘못된 결정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상관없고, 때로는 결여되어 있는 교회 자체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결정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분별하고, 고민하며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은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20~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누리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사역,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한 질문은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편견 없이 읽어보기만 해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왕국을 뒤집어 엮고, 유대 왕국이 로마 제국을 뛰어넘는 정치적 왕국이 되는 꿈입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그들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적,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교회의 건물, 조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등 외형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를 확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영어성경 번역 중에 <amplified Bib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된 번역입니다.

여러 말씀의 의미를 보다 풍성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성경입니다. 이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나의 임재로). For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because of My presence)”

‘나의 임재 때문에,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이념적인 제도, 이주, 세사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은 가지일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전이, 이식,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실제로’ 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실재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생명이 실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실재를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우리 몸을 해부하면 이것이 생명이라고 집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판단하고 느끼는데 우리 인격의 중심인 생명을 우리 몸 어딘가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들어 있는 실재가 있습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육체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실재로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연합된 자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크리스천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1. 체면 2. 불평불만 3. 걱정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체면 지키느라 무리하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 타인 시선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은 위선, 경계해야

요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유행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지 않음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다. 신앙생활에서도 미니멀 라이프가 꼭 필요하다. 그토록 자유로워야 할 크리스천들을 옥죄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그 첫 번째가 신앙생활에서조차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문화다. 체면(體面)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말한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체면, 버리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부터 우리 민족은 체면을 참으로 중요시 여겼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깃털은 찢지 않는다”, “냉수 마시고 이 썩신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 한다”, “조선 사람은 낮 먹고 산다”, “체면 차리다 굶어 죽는다” 등 다양한 속담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참으로 중히 여긴다. 나를 평가하는 남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 나머지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K자매(42세, 타교회)는 대학교 진학 당시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

“부모님이 교사셨어요 저도 자연스레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대(지방)에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대보다 명문사립대 진학을 원하셨어요 사립대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학비가 사립대보다 싼 교대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큰딸이 남들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명문사립대로 진학했는데 그때 교대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학과 공부 적성에 안 맞았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의 체면문화

사실 체면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교의 본고장 중국에도 체면문화가 강하다. 중국의 체면문화를 ‘미엔즈(面子)’라고 한다. 미엔즈는 ‘자신의 얼굴 즉 체면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덕목이다. 死要面子活受罪(체면 때문에 생고생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도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초나라 패왕 항우는 백전백승을 한 영웅이었지만 단 한 번 해하전투에서 패배한다. 그 유명한 사면초가 일화가 바로 그것이다. 항우는 이 전투에서 도망쳐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죽고 혼자 고향에 돌아갈 체면이 없다며 자결하고 만다. 중국인들은 그런 항우를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꼽고 있다.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것도 미엔즈문화에 기인한다. 주변 사



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크게 인성을 높이는 것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주문하거나 손님에게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것,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등이 바로 중국의 체면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미엔즈문화가 있다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하지(恥; 수치, 부끄러움)’ 문화가 있다. 일본의 하지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라이(무사)들의 할복(割腹)이다. 봉건시대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죽음과 같았다. 단적인 예가 바로 ‘시미즈 무네타루’라는 무사다. 시미즈 무네타루는 모리가문에 채용된 전국시대 무사였다. 모리가문을 정벌하러 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가문과 화친을 맺으면서 화친 조건으로 시미즈의 할복을 요구했다. 시미즈는 도요토미의 요구를 승낙했고, 며칠 뒤 자신의 형과 함께 성 앞에 배를 타고 나와 할복했다. 도요토미는 시미즈가 죽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며 “이것이 진정한 무사의 죽음”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명예 즉,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는 체면문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체면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

든 것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명령을 어겼다(삼상 15:9).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거짓 말하고(삼상 15:13),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삼상 15:20-24).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에도 회개하기를 꺼린 자신의 체면 지키는데 급급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삼상 15:30).

분봉왕 헤롯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였다.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헤로디아)를 취하고 왕위를 찬탈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고, 이에 분개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에 헤로디아가 계락을 꾸민다.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조카이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 헤롯 앞에서 춤추게 한 것. 헤롯은 자신을 기쁘게 한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다.

“헤롯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이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마 14:9).

반대로 체면을 내려놓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인물도 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 로마 총독에게 징수를

위탁받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고용했는데 대다수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 삭개오도 그런 세리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를 만나면 삶이 변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를 갈망했다. 예수가 예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는 먼발치에서라도 보려고 했다. 그런데 키가 작아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만두고 돌아갔을 텐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런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회개했고 놀라운 고백을 한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눅 19:8).

철저한 삭개오의 회개 앞에 예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눅 19:9)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을 위선이라고 하시면서 경계하셨다(마 6:1-2).

전셋집에 살면서도 비싼 외제차를 사야 하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녀의 적성보다 학교 이름이 더 중요하며 강요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월급보다 비싼 명품백을 할부로 사는 것도 체면의식에 사로잡힌 행동이다. 크리스천들도 체면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체면 때문에 순원들에게 공개하고 기도제목을 알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교회 다닌 지가 얼마데, 집사(장로, 권사) 직분은 받아야 하지 않나?’ 혹은 ‘동료 장로(권사)들이 저만큼 헌금하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라면서 무리하고 자유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체면문화에 사로잡힌 행동들이다. 신앙생활에서 체면치레는 불필요하다. 체면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단순하게 살아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오늘날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온갖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물론 풍요 속에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풍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도시마다 넘쳐나는 음식물은 물론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풍요로운 삶이 환경을 파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은 ‘미니멀리스트’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대응방법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2010년부터 영미권에서 시작된 ‘미니멀 라이프 운동’에서 찾고자 한다.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본질에 더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전제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더 행복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근본정신이다.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고 한다. 이들은 행복을 소유에서 찾지 않고 삶의 본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철저한 미니멀리스트이셨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마 8:19-20)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소유에서 찾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찾고 계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단순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마 10:9-10)고 하셨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떠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요구를 하셨지만, 단순한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생활철

학이 담겨있다고 느껴진다. 이처럼 예수님은 미니멀 라이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몸과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생활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준다. 예수님은 소유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셨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단순한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 생활환경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바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정서적, 영적으로 병들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 시간은

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쁘게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바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은 없고 일과 타인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여기에서 발을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을 달아보자.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영적인 삶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내 시간은 없고 예수님을 위한 시간만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오해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병들어 쓰러지는 교인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 예배자가 되는 것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육신의 건

정과 시간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삶의 짐을 얻게 된다. 짐이 있는 삶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넷째, 영성을 깊게 해준다. 바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건성으로 만나게 된다.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 그런 모습으로는 온갖 시험을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안식이 있는 생활을 하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체면치레에서 벗어나라!

우린 너무 체면치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체면치레는 특히 혼인예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체면 때문에 혼수를 남들 만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평생 한 번 뿐인 결혼식인데”라며 결혼예식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꽃값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쓰는 것, 그동안 투자한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등은 모두 체면치레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크리스천은 체면치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혼식의 본질은 신랑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화려한 잔치가 아니다. 수백만원짜리 결혼사진을 찍고 얼마 못 살고 헤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액의 결혼식을 치러놓고 불행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창한 혼수를 장만해놓고 힘들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혼의 본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화려한 잔치가 아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스몰웨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허례허식보다 결혼의 본질을 택하겠다는 성경적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롬 12:3).

그렇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크리스천의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영성의 과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유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단순하게 살 시대가 되었다.

“ 크리스천의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영성의 과정이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단순히 생활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재정, 만남, 일, 쇼핑 등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순위를 매겨보라. 그리고 끝 순위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라. 정리된 것들 때문에 삶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살던 삶의 패턴을 점점 단순하게 사는 패턴으로 바꿔보라. 이것은 영성을 깊이 있게 해주는 좋은 일상의 훈련이 될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가 주는 선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산다. 집안 살림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다. 버리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그래서 집안에 쌓아둔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꼭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좋아 보여서 혹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놓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현대인

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듯 정서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관계 다이어트와 스케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사람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단순한 생활을 위해서는 많은 모임과 만남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스케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왜냐하면 관계와 스케줄 다이어트가 자신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을 제공해 준다. 첫째, 재정의 자유를 준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의 압박 대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대신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둘째, 시간의 여유를 준다. 꼭 필요한 모임과 만남,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안식을 준다. 재정과 시간이 단순화되면 일단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재

아주 기분 좋은 변화

부천 대학청년부 더함교회 아웃리치

부천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공동체(이하 드림플러스)는 한 달에 한 번 소풍을 간다. 진짜 행복을 알려주는 뜻 깊은 발걸음이다. 행선지는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더함교회다. 부천에서 왕복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늘 가볍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하다보면 어느새 더함교회에 도착한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고백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꼭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꼭 막히는 고속도로에 있어도 행복한 이유가 있다.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설렘 때문이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한 달에 한번 다섯 시간이 넘는 길을 기분 좋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귀찮고, 불평하는 이도 없다. 다들 콧노래를 부르면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은 충청북도 옥천군 더함교회 성도들이다. 더함교회는 CGNTV 미니휴먼다큐 KNOCK ‘인포리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김준영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다. 홀로 사는 노인, 도박 빚에 시달리는 사람, 술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술꾼, 전과 20범의 범죄자 등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이들이 모인 교회다. 김준영 목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하며 돈을 벌어 성도들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매일 동네 이웃들을 찾아가 안부를 물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시대 작은 예수가 바로 그다.

드림플러스 청년들과 더함교회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8월 여름 아웃리치 때였다. 드림플러스 여름 아웃리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주인서 자매(더함교회 아웃리치 팀장)가 자신이 후원하고 있던 더함교회를 추천했다. 주인서 자매로부터 더함교회와 김준영 목사의 사연을 듣게 된 드림플러스 청년들은 더함교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박3일 동안 이어진 아웃리치 기간 동안 드림플러스 청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더함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도 논밭에 간 성도들의 농사일을 도왔다. 비닐하우스 보수공사와 교회 도배공사 같은 까다롭고 힘든 일도 척척 해결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했다. 여름성경학교를 열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초대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을 준비하고, 게임, 만들기, 축구 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말 2박3일 동안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부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기도기차’

누가 봐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행한 아웃리치였지만 드림플러스 청년들의 마음에 이유모를 아쉬움이 자꾸 생겼다. 무뚝뚝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더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던 어른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여름 성경학교 내내 쭈뼛거리면서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함교회 소식이 더 궁금했다. 더함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도 늘어갔다. 조병홍 목사(드림플러스 담당)는 더함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청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더함교회로 아웃리치를 가져오 제언했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맡은 일은 더함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청년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던 더함교회에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었다. 그것도 더함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열정과 사랑 가득한 청년들이 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이 된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은 유치등부와 중고등부를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 되는 더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역을 실패하지 않았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에 밟혀 설 수 없었다.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더함교회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사실 더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부터 드림플러스 청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연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주일학교 교사로 첫 만남을 가졌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했는지 집중하지 못했다. 설교는 커녕 기도와 찬양도 함께하기 어려웠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은 아이들과 친해지고, 교회와 예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갔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사역의 전부였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

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다.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아이가 손을 잡으며 “선생님 또 언제 와요?”라고 물었다. 율동시간에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드림플러스 청년들과 더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했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의 목소리만 들리던 찬양시간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주기도문을 한 줄도 못 외우던 아이가 한 달 만에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외웠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아파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다. 지난 8월 아웃리치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아웃리치 마지막 기도시간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던 주인서 자매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뒤돌아봤더니 아이 한 명이 자신의 손을 주인서 자매의 등에 올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곧 그 아이 뒤로 다른 아이들이 다가왔다.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이 서로의 등에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세상에 돌도 없는 ‘기도기차’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주인서 자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만든 기도기차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의 기도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더함교회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귀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함교회에 가면...

더함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방문을 낮설어하며 피하던 어른들도 이제는 반갑게 맞아주신다. 먼저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생겼다. “손님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불편해 하시던 어른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주방 일을 넘겨준다. 드림플러스 청년들은 더 이상 더함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조금 무거웠던 예배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배시간에 성경책을 던지며 싸우던 어른들이 지금은 두 눈을 반짝이며 예배를 드린다.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어른들도 많아졌다.

더함교회 아웃리치를 이어오면서 드림플러스 청년들도 달라졌다. 안슬에 자매는 더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일대일 양육자반에 등록했다. 안슬에 자매의 가슴 속에는 온통 더함교회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 더함교회 아이들이 안슬에 자매에게 삶의 기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더함교회에 가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뒀야 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져요. 더함교회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정서연 자매는 더함교회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방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낼 수 있는냐인 것 같아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함교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해요. 그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나 봐요. 더함교회 아웃리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는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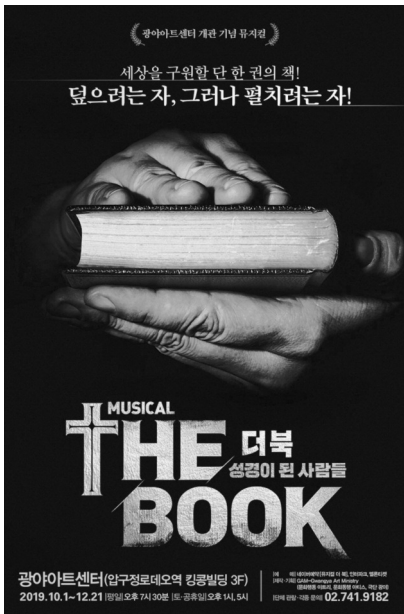
1. 드림플러스 더함교회 아웃리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2. 김준영 목사님과 가정에 더 큰 은혜가 가득하도록
3. 더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4. 더함교회 예배당 건축에 관한 재정과 부지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후원계좌 국민 405301-04-293158 (더함교회)

꼭 한번 봐야 할 공연

그 이름 '롤라드' 를 아시나요?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세기 중반, 잉글랜드에 '롤라드'들이 있었다. 롤라드는 당시 가톨릭교회 사제들밖에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을 모든 이

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해서 퍼뜨리는 이들이다.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 외에는 소유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다. 가톨릭교회가 그들을 좋아할 리 없었다. '독버섯',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롤라드'라고 부를 정도였다. 가톨릭교회의 롤라드 탄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롤라드들은 교회를 피해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롤라드 중에는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많았다. 위클리프와 제자들이 만든 성경 번역본이 잉글랜드 전역에 전해지면서 농민, 구두공 등 평범한 시민들마저 롤라드가 되기로 자청했고, 그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톨릭교회는 존 위클리프의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화형시킬 만큼 크게 분노했다. 영어성경을 발견하면 즉결심판을 할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롤라드들은 또 한 번 큰 결단을 한다. 성경 66권 중에

서 한 권을 본인의 이름으로 정하고 통째로 외우고 다녔다. 그렇게 롤라드 66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완성됐다. 롤라드들이 성경을 외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받아 적어서 성경 수백 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과연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창작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의 주인공인 신발가게 주인 '토마스 돈'과 그의 아내 '하위사 돈'은 당시 교회를 믿고 따르며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평범한 부부다. 딸 '아이린'과 함께 평안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가정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 딸 아이린이 롤라드 활동을 하면서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한다. 감찰사제들의 지독한 추적 속에서 일상에서 느끼던 행복이 깨지고 말지만 부부는 딸 아이린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는다.

창작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의 프

로듀서 김관영은 "이 공연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작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지난 2013년 초연 된 이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까지 약 7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만났다. 대학로에서 압구정로테오 공연장을 옮기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스스로 성경책 한 권이 되기를 선택했던 롤라드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12월 21일까지 서울 압구정로테오역 근방의 광야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러닝타임은 120분이다.

장소: 광야아트센터(압구정로테오역 킴빌딩 3층)
시간: 월,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토, 공휴일 오후 1시, 5시
문의: 02-741-9182

/ 김연성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

삶으로 변증하라!



〈믿음의 이유〉
라비 재커라이어스 지 | 두란노 |
15,000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뒤에 질문하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친절히 대답해야 한다. 영향력은 삶에서 나온다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중적인 삶만큼 복음 전파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도 없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스스로 돌아보며 회심한 이후 개인과 주변인들의 삶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기독교를 향한 물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한다. 〈믿음의 이유〉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학자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52가지 믿음의 이유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다. 문제집처럼 질문과 답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믿음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를 향한 모든 물음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과 지적인 갈등에서 물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언행을 확인하면 신앙을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실존적인 고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우주, 역사, 개인의 경험까지 말이다. 특히 저자는 기독교인들은 변증할 준비가(벧전 3:15) 되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중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될 준비로 '삶으로 변증하기'를 꼽았다.

목회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목회자 자신



〈목회를 말하다〉
이규현 지 | 두란노 | 13,000원

"목회자는 대접받으려 하고, 유명해지려 하고, 성공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는 굉장히 낮은 일입니다."

〈목회를 말하다〉 저자 이규현 목사가 스스로와 동료 목회자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수영로교회 담임목사인 이규현 목사는 목회자는 복음 장사꾼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회를 말하다〉는 스스로 어떤 목회자인지 돌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섬세한 접근법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목회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목회자 자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규현 목사는 '목회는 누구인가', '나만의 목회론은 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자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목회자들이 목회의 걸림돌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규현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되는데로 목회하지 말고, 영성, 지성, 감성의 밸런스가 잡힌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무엇보다 사역자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교훈한다.

"지금하고 있는 사역이 잘 된다면 후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가십시오. 편안한 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이 힘들면 아주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온두라스의 변화를 열방이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온누리교회, 올해도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 주관



온누리교회가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 온두라스(Honduras)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온누리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성경의 날' 행사가 열린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와 산 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서 집회를 주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 주관이다. 올해도 한국과 온두라스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 성경의 날이었던 지난 29일(주일) 집회에는 무려 1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 놀라운 천군잔치 현장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두라스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이 있다. 바로 '성경의 날'이다. 온두라스는 1987년부터 법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성경의 날로 제정하고 지키고 있다. 개신교 세미나와 집회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이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것도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온두라스에서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온두라스 국민의 90%(개신교 48%, 가톨릭 42%)가 하나님을 믿는다. 최근 들어서 개신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온두라스의 크리스천 비율이 10% 이하였는데 지금은 무려 48%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의 변화가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온두라스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살인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마약의 중간 유통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두라스를 변화시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동규 장로의 '킹덤 비즈니스'

지난해 온두라스 성경의 날은 더욱 뜻 깊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이동규 장로(SB리더, LOM leaders 대표)가 있다. 2016년 12월이었다. 이동규 장로가 온두라스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장로는 이 일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다. 그때부터 '킹덤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다. 킹덤 비즈니스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은 이

동규 장로를 사용하셔서 킹덤 비즈니스를 한 걸음씩 이뤄가셨다. 이 장로가 사업을 하면서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에 성경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에서 성경의 날 행사에서 말씀을 전할 강사를 추천해달라는 정도였는데 만남을 이어갈수록 지경이 넓어졌다.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열리는 성경의 날 행사를 온누리교회가 주관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 그 열매가 지난해 맺혔다. 온누리교회가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올해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갔다. 온두라스와 온누리교회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났다. 또 한 번 힘을 합쳐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됐다. 온두라스 정부가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한 이동규 장로와 온누리교회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올해도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작지만 너무 큰 변화들

올해 온두라스 성경의 날 집회는 더욱 풍성해졌다. 지난해에는 강사 6명을 초청했는데 올해는 한국과 미국 온누리교회에서 그 두 배가 됐다. 올해 온두라스 성경의 날 집회 강사로 초청된 온누리교회 교역자는 12명이다(강미향 목사, 강일영 목사, 김진우 목사, 노희태 목사, 도육환 목사, 마크 최 목사, 박신웅 목사, 박종길 목사, 심상현 목사, 이종재 목사, 정장철 목사, 황종연 목사). 이상진 목사(찬양팀, SB리더)공동체 지체 7명, 남미 각지에서 모인 통역사(선교사)들도 함께 했다.

작년 성경의 날 행사 이후 작지만 너무 큰 변화들이 있었다. 올해는 성경의 날 행사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뿐만 아니라 대표적

인 경제도시 산 페드로 술라에서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온두라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온두라스는 개교회와 교단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이동규 장로가 구심점 역할을 한 덕분에 처음으로 힘을 모으면서 개교회와 교단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동규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 "온두라스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면 제 사무실에서 기독교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연합을 강조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니 분리되어 있던 온두라스 개교회와 교단이 연합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가 주관한 성경의 날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행사 당시에만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동규 장로는 성경의 날 후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 보급에 힘썼다. 지난해 10월에는 온두라스 모든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생명의 삶>을 나눠주는 등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두라스에서 기독교 세미나를 계속 열면서 <생명의 삶>을 보급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지속된다면 온두라스 성도들의 삶이 변화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온두라스의 변화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장인 로헤르 목사(브니엘교회 담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교회가 주관한 성경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에서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올해도 온누리교회가 주관하는 성경의 날 행사만 기다리고 사모했다고 한다. 다른 온두라스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온두라스 교회와 교단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먼 나라인 온두라스까지 오셔서 섬겨 주신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의 만남은 온두라스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로헤르牧사는 이번 성경의 날 행사에서 온

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온두라스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도전을 주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온두라스에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고, 사회적·경제적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두라스 변화의 시작과 끝 '말씀'

올해 성경의 날 행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경제도시 산 페드로 술라에서도 열렸다.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의 영향 덕분이다.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산 페드로 술라 기독교협의회 임원들이 방문했다. 그때 한국과 온두라스 성도들이 언어와 인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올해 성경의 날 행사를 산 페드로 술라에서도 개최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산 페드로 술라에는 인구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수도 테구시갈파에 이어 온두라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교통의 요지이자 온두라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부흥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산 페드로 술라는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때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했다. 지금은 그 순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중남미 사람들이 가난과 폭력을 피해 7천 명 정도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행렬이 처음 시작된 지역이 바로 산 페드로 술라였다.

산 페드로 술라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다. 산 페드로 술라 기독교협의회장인 앙헬 알프레도 목사는 그 희망을 지난해 성경의 날 행사에서 발견했다. 온두라스에 성경의 날이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산 페드로 술라에서도 연합행사가 열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맥이 끊겼다. 산 페드



1. 성경의 날 행진에 참여한 아이가 탬버린을 치고 있다. 2. 성계를 옮기는 모습을 재연한 성도들. 3. 많은 성도들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4. 요나의 모습을 한 아이. 5. 찬양팀이 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로 솔라 기독교협회의 임원들이 지난해 테구시갈파에서 열린 성경의 날 행사에 참가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작년에 테구시갈파에서 성경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온누리교회와 테구시갈파 기독교협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운동을 온두라스 최대 공업도시인 산 페드로 솔라에서도 개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끝났던 산 페드로 솔라 교회연합 행사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헬 알프레도 목사는 온두라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성경입니다. 온두라스가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온두라스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성경의 날 행사를 계기로 온두라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성경의 날 행사에서는 방송설교에 중점을 뒀다. 이동규 장로가 테구시갈파에 있는 방송국 PD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그 덕분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방송과 라디오를 섭외했고 전국에 방송으로 설교를 내보낼 수 있었다. 올해 행사에서 방송설교에 중점을 둔 이유는 성경의 날 행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비록 성경의 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찾아가는 설교도 했다.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다. 평생 외부강사 한번 초청할 수 없는 열악한 교회를 선택했다. 성도 수는 적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어느 곳보다 갈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는 테구시갈파에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산 페드로 솔라에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 집회, 방송설교, 전도, 학교집회, 재활원, 고아원 방문 등 강행군이 이어졌다. 그 힘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누구 하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특히 이상진 목사와 찬양팀은 온두라스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스페인어로 인도했다. 이를 위해 5개월 전부터 연습했다. 통역을 도와주려 온 박주형 형제는 “온누리교회 찬양팀의 스페인어 찬양이 너무 완벽하다”면서 깜짝 놀랐다. 통역사가 깜짝 놀랐을 정도였더니 온두라스 성도들에게 전달된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 온두라스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는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온누리교회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행사 기간 내내 방송으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전국에 중계되었다. 자연스럽게 온두라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전달되었다.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다. ‘사바나 마을’이었다. 테구시갈파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소득도 높지 않고,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도 온누리교회팀이 전도와 설교를 했다. 마을집회에서 설교가 끝나는 순간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데 금세 옷이 젖고 여기

저기 물웅덩이가 생겼다. 온누리교회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끝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활짝 핀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마른 나무에 새 생명이 돋는 장면이 교차됐다.

‘틴 챌린지(Teen Challenge)’라는 기관에도 찾아갔다. 약물(술, 마약 등)중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활하고 있는 곳이다. 10대에서 50대 남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두웠던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꾸꾸는 곳이다. 여기서도 온누리교회팀이 말씀을 선포했다. “틴 챌린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말씀선포에 성도들이 우렁차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산 페드로 솔라 교세차교회에서 드린 금요일 예배에도 참석했다. 폭우와 벼락으로 정전되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예배를 준비했다. 곳은 날씨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 예배 공간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그 뜨거운 열정이 9월 28일(토) 산 페드로 솔라에서 열린 성경의 날 행사까지 이어졌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산 페드로 솔라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연합해서 스타디움에 모였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스타디움에 모인 산 페드로 솔라 성도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온두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대미는 9월 29일(주일) 테구시갈파에서 열

린 성경의 날 행사가 장식했다. 10만 명의 성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집회가 열린 스타디움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부터 행진을 준비할 정도였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비유와 관련된 의상을 입고 집회 장소까지 천천히 행진했다.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주를 높이며 행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 메인집회가 열린 스타디움에 성도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졌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했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와 마크 최 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가 했다. 메시지는 동일했다. “온두라스의 변화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강력한 메시지에 온두라스 성도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절망적인 환경, 높은 현실의 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후가 기대된다. 온두라스에서 시작 된 변화의 물결은 온두라스가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온두라스를 통해 열방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다. 온두라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온두라스의 변화를 주변 국가인 니카라과가 주목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온두라스와 같은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변화를 온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박종길 목사(왼쪽), 감미향 목사(가운데), 김승석 선교사(오른쪽)가 온두라스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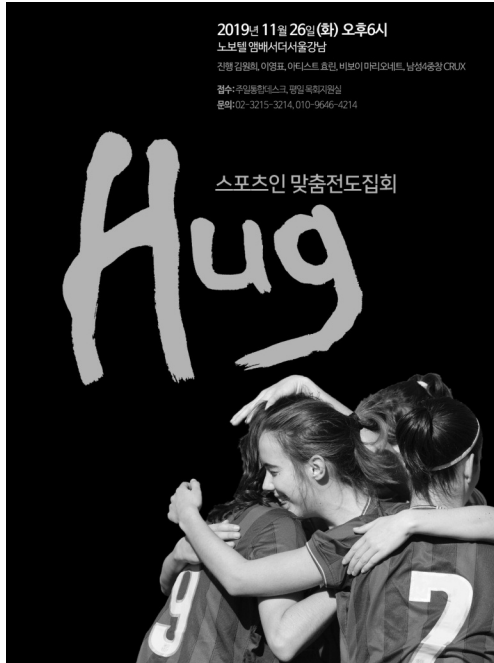
“헉! 소리나게 안아주세요”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HUG 콘서트’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HUG 콘서트’가 11월 26일(화)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샴페인홀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헉! 소리나게 안아주세요’다. 전도대상자는 전 현직 국가대표 선수, 실업팀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이다.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HUG 콘서트에 참가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마감(1차 10월 23일)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주일 통합데스크,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HUG 콘서트는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허그 콘서트, 세례교육과 세례식 순으로 진행된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은 10월 28일(월)과 11월 11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요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도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방법 및 집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이 자리에는 ‘Key Person’이 참석한다. Key Person은 스포츠 각 분야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의미한다. 허그 콘서트는 11월 26일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샴페인홀(2층)에서 진행된다. 만찬과 더불어 영혼을 터치하는 감동메시지와 특별공연이 준비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집사, 방승인 김원희, 가수 효린, 남성4중창 CRUX, 비보이 마리오네트 등이 게스트로 출



스포츠인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HUG 콘서트. 연한다. 세례교육과 세례식은 전도집회에서 결신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2월 22일(주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국제부 ‘2019 올네이션스예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연합

국제부가 지난 주일(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2019 올네이션스예배’를 드렸다. 올네이션스예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예배 등 온누리교회 국제부 성도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다. 이날 예배에는 국제부 소속 성도 414명이 참석해 5개 언어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국제부 성도들이야말로 온누리교회를 온누리교회 되게 하는 주인공”이라고 축복했고, 스티브 차 목사(국제선교회 국제부 성도들에게 “이 땅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혼자 행복학교 참가자 모집

10월 19일~11월 16일 서빙고 한동홀

이혼자 행복학교 34기 ‘드림 어게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5주 동안 진행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생모델과 가족의 이해’, ‘자아상 회복’, ‘못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대상은 이혼한 남녀, 별거중인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다. 10월 19일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성인 10만 원(식대, 교재 포함), 어린이 3만 원(돌봄). 문의: 010-3489-2080

‘5060 부모교실’ 참가자 모집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 부모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9일(토)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5060 부모교실에서는 ‘건강한 성경적 떠나보냄과 그 실제’를 주제로 이기복 목사(두란노바이블칼리지 결혼예비학교 주강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전화 및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3706-9077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스쿨 양재 주일 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13일까지 아이스쿨과 사랑홀 로비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8906-4940

장애인부서 화재대피 훈련 실시

지난주일(6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부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서빙고 사랑부(장애인예배공동체) 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은성 학생(사랑부)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진짜 화재가 나더라도 잘 대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선교 사역박람회 실시

사회선교부가 지난주일(6일)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사역박람회를 실시했다.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사회선교부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사회선교부 사역은 서울역 희망공동체, 한누리 탈북민사역, 생명과 환경, 경제정의, 회복적정의, 일하세. 아카데미, 새사람사역, 아트비전, 은빛날개, JHOME 등이 있다.



구마모토 기·도·제·목

- 10월 13일(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 10월 14일(월) 구마모토 리더십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10월 15일(화) 집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은혜가 넘쳐나도록
- 10월 16일(수)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 10월 17일(목) 일본 교회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도록
- 10월 18일(금) 모든 출연진들과 봉사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 10월 19일(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8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정호욱 상임이사,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온누리복지재단 후원자 및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서 “앞으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0주년도 없었을 것”이라고 인사했다. 최호영 군(군포하나로청소년중장기 쉼터)은 “나를 바르게 해준 온누리복지재단에게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했고, 김은덕 요양보호사(온누리요양센터)는 “어르신들과 온누리복지재단 시설이 너무 좋아서 6년째 근무하고 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0월 20일(주일) /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8월10일~10월5일 등록 성도

강남A	이혜옥	황선주	김호윤
김순천	민덕기	신명옥	신태자
신명옥	이승백	안도건	이나영
장인경	분당A	설정식	이희재
강남B	김명자	김정미	우동호
남정숙	남재순	심동섭	이하나
강남D	이하나	이경희	조정국
강남E	배은희	유다운	홍성준
경기A	김유정	차홍석	김학동
김호윤	노진환	신혜정	왕승희
장홍준	전대진	최윤정	푸른누리
김호준	모재영	신지혜	임미라
정다희	하나	김주희	신금향
왕연	이영애	이지나	전수정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7475	정유진	여호수아	1137517	김나영	SNS	1137544	박준현	대전 북누리	1137581	박배영	부천 화평
1137476	김수연	여호수아	1137518	곽준현	SNS	1137545	김선경	신용산	1137582	김희영	부천 믿음
1137477	박신규	여호수아	1137519	장혁	SNS	1137546	정신영	푸른누리	1137585	이준노	도곡
1137478	이유란	여호수아	1137520	송민용	SNS	1137547	홍수빈	허브	1137586	이세라	대전 남누리
1137479	이현표	여호수아	1137521	장문정	SNS	1137548	최지영	경기A	1137587	이선하	Harmony
1137481	박경원	S브릿지	1137522	유혜경	SNS	1137549	정태진	Point5	1137588	김경조	평택
1137482	장인경	강남A	1137523	강건	SNS	1137550	정태진	여호수아	1137589	심경아	이촌
1137483	박주영	S브릿지	1137524	김경원	SNS	1137551	채유정	여호수아	1137590	허윤창	평택
1137485	김정희	서초C	1137525	윤상희	SNS	1137552	김연정	여호수아	1137591	임진우	한강
1137486	박현경	광명	1137526	김명섭	SNS	1137553	강예원	여호수아	1137592	고유진	S브릿지
1137487	한수정	마포	1137527	이주연	SNS	1137554	이상민	여호수아	1137593	오준경	J4U
1137488	오길수	부천 화평	1137528	이한솔	SNS	1137555	오수민	여호수아	1137594	이종하	J4U
1137492	이복구	인천 서누리	1137530	심우범	마포	1137556	최은아	여호수아	1137595	김지원	J4U
1137493	김임순	부천 믿음	1137531	박정은	인천 서누리	1137557	이상화	여호수아	1137596	최신용	J4U
1137496	김영애	Bridge33+	1137532	유미현	성북	1137558	신성광	여호수아	1137597	김기운	J4U
1137498	김희전	S브릿지	1137533	장승돈	이촌	1137559	장현덕	여호수아	1137598	김태준	부천 Dream
1137499	다니엘박	OEM영어예배	1137534	김하은	SNS	1137560	허주희	여호수아	1137601	배은희	강남D
1137500	조선진	대전 동누리	1137535	이연아	대전 동누리	1137561	이수지	여호수아	1137608	이한규	수원 서누리
1137507	한준현	Gil	1137536	이주희	북누리	1137562	김종건	여호수아	1137609	이예지	부천 Dream
1137508	채교민	Gil	1137537	최수진	인천 미추홀	1137563	박서연	J4U	1137610	이현희	부천 Dream
1137511	신정석	SNS	1137538	김은선	S브릿지	1137564	이상기	양지 동누리	1137611	김미리	부천 Dream
1137512	이경수	SNS	1137539	정래천	인천 동누리	1137565	안필남	양지 동누리	1137612	박민호	부천 Dream
1137513	최준서	SNS	1137540	하정원	부천 소망	1137568	박은을	여호수아	1137614	이소연	부천 Dream
1137514	김휘원	SNS	1137541	김민수	S브릿지	1137569	박정하	여호수아			
1137515	오주은	SNS	1137542	성지숙	서초B	1137570	신성래	S브릿지			
1137516	황인재	SNS	1137543	한승자	영등포구로	1137571	윤문	관악금천			

■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양육자님의 말씀과 기도

/ 김소망(가명, 소망교도소 재소자)

기독교와 성경에 문외한이었던 내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온누리교회와 일대일 양육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 전에 모친을 따라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녔다. 내 생활 곳곳에 불교적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자체가 어머니를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해 엄두도 내지 않았다. 예수님, 교회, 목사 등의 단어조차 거부감으로 다가왔다. 성경의 좋은 말씀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구속 이후 검찰조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심신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두려움과 충격을 받은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때 마침 한 재소자의 권유로 기독교 집회를 갔는데, 칠판에 써 있는 성경말씀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날 이후 꾸준히 집회에 참석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등을 외웠다. 기독교 관련 잡지와 서적을 접하면서 마음속 생각들을 기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소망교도소로 와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게 되었다. 초보적인 기독교 상식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참으로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에 따라 성경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을 보면서 혼돈이 적지 않았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해소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내가 갖고 있던 의문들을 해소함과 더불어 반신반의 했던 성경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양육자님의 말씀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시시콜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양육자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인내와 담대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충고해주셔서 위로와 용기를 내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출소 후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싶다.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와 선교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봉사자 모집: 예배 지원, 일대일 제자양육
문의: 010-4286-0078

■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김충호 집사(용산공동체)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아버지학교에 입학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료 소감문을 쓸 때가 되니 언제 또 이러한 감동 가득한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까 하는 허전한 마음이 앞선다.

아버지학교 입학 전에는 그렇듯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달려온 것 같다.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보며 깊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중심을 두었지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며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지겠다고 다짐했다.

변화의 첫 걸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다. 정체성 확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내가 아버지이자 남편임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와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면서 사랑의 실체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준 아내의 사랑을 되짚어보며 정말 감사했다. 그동안 건성으로 했던 “사랑해”라는 말 대신 아내를 안아주며 축복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했다.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와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 어른이 된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내가 베푼 사랑을 동일하게 전하며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버지학교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한 형제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형제님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삶의 나눔들이 내게 정말 큰 감동이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나누고, 웃고, 울던 시간들은 앞으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며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 기도가 뜨거운 사랑의 기도로 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품듯이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며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 손진성, 황선영 선교사(동아시아A국)

동아시아A국 선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현지인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C도시는 A국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700km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정도 크기의 소도시입니다. 인구는 4만 명입니다. A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과 동쪽으로 다른 국경이 인접해 있어 무역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은 A국과 러시아,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련과 A국 연합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5천여 병력을 잃고 패배하였고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승전을 기념하는 전적비와 기념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C도시가 속한 행정구역에는 B족들이 사는 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C도시에 있는 마더처치 ‘생명의 문 교회’를 도와 B족 마을을 복음화 하는 종족사역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0.5%에 불과한 B족 복음화율을 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국의 소수민족인 ‘B족 선교’를 넘어서 B족들이 A국, 러시아, 중국에 흩어져있는 B족들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 B족’이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2018년 초부터 많은 이동 끝에 지난달 10일 최종 정착지인 C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래도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문 교회에서 드린 첫 주일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언어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간증



/ 박창조 성도(강남A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미국으로 창조과학탐사를 떠나기 전에 창조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듣게 되었다. 진화론이 지질학적으로도 허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까지 가면서 창조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창조신앙스쿨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 덕분에 창조과학탐사에서도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론을 단순하게 믿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창조론에 대해 깊게 살펴 볼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등학생 때까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진화론에는 많은 문제점과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사실 깊은 생각 없이 창조론을 믿어 왔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사건을 보면서 ‘과연 당시 인류가 멸망할 만큼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 쓰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생겼다.

창조신앙스쿨을 수료하고 다녀온 창조과학탐사는 이론적 내용을 현장학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진화론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창조론에 대해 보다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믿음과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이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아주 특별한 결혼예배



임헌태 장로 (행복한 하나예배)

지난 주 토요일 오후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예배가 있었다. 북한에서 온 형제자매가 남한에서 만나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소중한 시

간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포도가 떨어져서 안 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덕분에 부부는 물론이고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까지 기분 좋게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결혼은 이렇듯 신랑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에게까지 기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다.

결혼은 선남선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 상으로 하나님의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구원의 축제이다. 예로부터 결혼은 '화족을 밝히는 날'이라고 했다. 신랑신부가 신혼 첫 날 화족으로 신방을 환히 밝히고 앞날의 행복을 빌고 빌었다. 아름다운 촛불이 타면서 신방이 빛으로 밝혀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 촛불이 자신을 태우며 방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린다. 부부 역시 서로에게 아름다운 촛불이 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밝은 빛을 밝혀야 한다. 정충혁 형제와 강설경 자매 역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가

정을 이루어 감으로써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도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 돕는 동역자로서 살기를 바란다. 또한 복음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영적리더십으로 잘 정착하기를 기도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낳아 애국애족하기를 축복한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혈혈단신으로 이 땅에 온 부부를 위해 '행복한 하나예배' 식구들을 비롯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우리 부부도 신랑의 부모자리에 앉아 영적부모 역할을 감당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자꾸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또한 허원희 목사님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과 재치 있고 유쾌한 주례사는 결혼식을 전국잔치로 만들었다. 이들 부부의 하나된 동기생들도 많이 와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지체들은 축가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행복한 하나예배 사역자들이 이번 결혼식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식장을 꾸미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은혜로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다.

남들이 보면 120여 명이 모인 평범한 결혼식이겠지만 이날 결혼예배는 주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 이미 우리 안에서 작은통일을 이루어 낸 아름다운 축제 한마당이자, 아주 특별한 결혼예배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책임져주시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서승옥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우리는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 본과의 아픔을 늘 아픈 채로 간직하고 되새기기만 해서 는 안 된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녀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

서 매일 짓무르고 피가 흐르는 채로 있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주께서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리니 내가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왔나이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통회하며 읊은 시의 한 구절이다. 어떤 자매가 자신은 상처 받은 영혼이라며 이 구절을 자신의 SNS 계정에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덮어두고, 이 한 구절만 떼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은 자신의 상한 마음만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시편은 다윗이 상처를 다스리고 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절하게 구하는 절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한치 앞도 모르는 괴로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성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독이신다.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삶을 나누셨던 것처럼 일대일 동반자와 양육자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서로의 아픈 과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 하용조 목사님은 용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러브소나타를 불러야 한다. 일본 땅에 있는 이들과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일본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을 용서하는 일은 그들에게 상처를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다.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맛나게 하고, 또 빛의 역할로 세상을 밝게 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

신앙에세이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변대섭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뜻 깊은 섬김을 했다. 예배 안에서 나타난 감사가 예배 이후 교회 인팍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아부는 각 가정에서 가져온 과일을 헌물하고, 일일자선장을 열었다. 모아진 금액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쓰였다. 유치부는 고사리 같은 축복의 손길을 모아 북한민의 예배처소로 향했다. 유년부는 쌀과 생필품, 과일을 들고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을 찾아갔다. 초등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찬양과 노방전도를 했고, 중등부는 교회 주변 마을청소를 계획했다. 고등부는 축복의 과일을 들고 이주민 외국인들

에게 발걸음을 옮겼다.

차세대를 섬기면서 매년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바로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도 약하고, 지혜도 많지 않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조차 없는 영유아들도 있다.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차세대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 오히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때도 있다.

이번 여름 청소년 7명과 교역자, 교사 5명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몽골을 다녀왔다. 우리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 80여 명이 연합캠프를 했다. 규모로만 보면 그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사역이었다. 몇 주 동안 훈련하며 준비를 했지만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전문 사역단체가 아니다. 그저 또래의 몽골 청소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이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 팀으로 모여 2박3일

을 함께했다. 놀랍게도 이번 캠프에 참가한 몽골 청소년 30명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에 힘입어 오랫동안 중단된 청소년 주일예배가 곧장 재개되었다.

캠프 직후 현지 리더들의 피드백이 있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다가가고, 함께 한 것이 매우 큰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자신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한 것이 교회에 온 몽골 청소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했다. 물론 앞선 분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의 열매를 거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쓰셔서 선교지에서 일하심을 보는 순간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히 바라보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차세대들이 갖는 순전한 마음은 매우 훌륭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

차세대들의 순전함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기쁨’과 ‘겸손’이다. 어린 자녀들은 찬양 가사

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예배 이후 이웃을 찾아가는 나눔 활동이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순종의 시간이다. 그렇게 섬김 후에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다. 차세대들은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인정하는데 서툴다. 그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에 더욱 기쁨으로 환호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마 18:3).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차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의 작음과 연약함은 그대로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차세대들을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세대들과 같은 순수한 기쁨과 겸손을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조직,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피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나는 온누리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온누리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염시키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비유를 드셨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씨앗과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변화된 생명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작은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식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작은 씨앗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생명이 자라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누

군가 어떤 종교를 만들어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도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로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림 한 점 그리지 않으셨지만 가장 많은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서양 음악의 음악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영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역동할 것 것입니다.

세상 속 교회의 사명

또 누룩의 비유를 듣습니다. 누룩은 작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합니다. 자연법칙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켜버리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더러운 물이 많은 곳에 깨끗한 물을 적게 부으면 그 물마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많은 물에 적은 소금을 탄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소금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3%의 염분이 있지만, 온 바다를 소금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많은 밀가루에 섞으면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소금과 같고, 빛과 같고, 누룩과 같아서 주변

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면 어두울수록 빛이 나고, 부패할수록 소금의 짠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정부도 아니고, 타종교도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 화석화된 교회입니다.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교회, 교회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교회,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한 모임에만 만족하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 형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가는 교회들이 역사 속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영향을 주기보다 세상의 염려를 받는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역사가 오래될수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계속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이 미디어 전쟁 시대에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이 땅에 살면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삶

회사 다니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했는데 소위 '숲세권'에 살게 되었다.

이쪽으로 걸으면 예쁜 도심공원이 나오고, 저쪽으로 걸으면 탁 트인 한강공원이 이어진다. 게다가 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그러다보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나?' 후회가 들었다. 그런데 이런 내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나를 꾸짖었다.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를 싫어하시는 거 모르니?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주시진 않을 거다."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에 딸에 대한 실망이 깊게 묻어있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으신 엄마한테 효도는 못할망정,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근심만 끼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렇게 자책하다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라며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났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면서도(요 3:2) 유대 지도층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기에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안쓰러

게 생각하셨는지 "누구든지 거듭나지(born again)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3)는 진실을 전해주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희랍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위로부터(ανωθεν) 태어나지 않으면'이다. 예수님 당시 구어체에서 '다시'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지만 원래는 '위로부터'의 뜻이 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책 《메시지》에서 니고데모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번역했다.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요 3:5)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부연설명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양수 안에 있던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면 탯줄이 잘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야 스스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상 공기를 호흡하며 시류를 따르던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

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희랍어로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공기, 바람'이라는 뜻과 그 속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호흡하고 사는 사람은 남들이 따르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며 하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된다. 엄마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사 55:8)는 말씀처럼, 늘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엄마의 생각은 나와 좀 다르다. 만약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더라도 엄마는 기뻐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계속 '마음을 둔 것'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눅 12:34)고 말씀하셨듯이 엄마는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돈에 더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다. 엄마도 자신의 딸이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에서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 나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든든해서 일이 터지면 엄마부터 찾는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투덜거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이

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당신의 가장 간절한 1순위 기도제목은 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구라고.

엄마의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게 된다. 그것은 세상 속에 살기에 어쩔 수 없이 젖어드는 세속적 요구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다. 그 힘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금요철야예배를 빠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거듭남은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아의 죽음을 겪는 일하기에, 예수님처럼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눅 6:12)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밤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일날 아침 예배에서 부활의 기쁨은 곱절이 된다.



양희정 성도
(민음사 편집부장,
고양은평공동체)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돈 카슨
Don Carson

브라이언 채플
Bryan Chapell

필립 라이큰
Philip Ryken

스티븐 엄
Stephen Um

주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

기간 2019. 10. 30(수) ~ 11. 1(금)

장소 양재온누리교회(햇불선교센터)

시간	10월 30일(수)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10:00 ~ 12:00	등록확인	Bryan Chapell 우리가 믿는 성경	Don Carson 말씀 계시의 중심성
12:00 ~ 13:00		점심	점심
13:00 ~ 15:00	Philip Ryken 성경은 영원하다	Philip Ryken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Don Carson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설교하기
15:00 ~ 15:30	휴식	휴식	휴식
15:30 ~ 17:30	Stephen Um 진리의 말씀	Stephen Um 성경의 충족성	Don Carson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
17:30 ~ 19:00	저녁	저녁	
19:00 ~ 21:00	Philip Ryken 성경은 순전하다	Bryan Chapell 말씀을 외치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은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강사 돈 카슨(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명예교수, TGC 대표)
 브라이언 채플(그레이스장로교회 담임목사, 커버넌트신학대학원 명예총장)
 필립 라이큰(제10장로교회 담임목사, 휘튼대학교 총장)
 스티븐 엄(보스턴시티라이프장로교회 담임목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교수, TGC 부대표)
문의 온누리교회 양재 목회지원실 02-570-7447 / 이메일 maggangs@onnuri.org

주최 TGC^{kr}

협찬 CGNTV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두란노 SUPERBOOK

개혁신실천사 LOGOS 성경소프트웨어

